환율 1400원 넘나… 기준금리 두고 난감한 한은

이슈 분석

수일째 1300원 후반대 유지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배경
고관세 부과로 인플레이션 우려
기준금리 인하에 걸림돌로 작용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슈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부각되며 조만간 1400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슈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부각되며 조만간 1400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환율 급등 우려가 높아지며 기준금리를 둘러싼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욱 커지게 됐다.

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90.6원)보다 10.2원 내린 1380.4원에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300원 후반대에 줄곧 머무르고 있다. 지난 4월 중순 원·달러 환율이 1394.8원까지 치솟았을 때는 미국 물가 불안 재연과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급등의 원인이었다. 하지만 지난 2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비둘기(통화완화 선호) 발언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1380원~1390원대를 횡보하고 있다.

미국의 통화정책 선회 가능성에도 원·달러 환율이 진정되지 않는 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외환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재발하고, 대규모 감세에 따른 재정적자가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결국 달러 강세 요인으로 이어지게 된다.

여기에 엔화, 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 약세도 이어지고 있어 환율은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원화는 위안화와 엔화의 대리(proxy) 통화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들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도 함께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지난 1일(현지시간) 거래된 엔·달러 환율은 1달러당 161.72엔까지 올랐다. 이는 1986년 이후 37년 6개월만의 최고 수준이다. 엔·유로 환율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인 1유로당 173.68엔을 기록했다.

외환보유액도 영향을 받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22억 1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6억 2000만 달러 감소했다. 지난 4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는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 외환스와프를 실시하며 외화자금이 줄었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KB증권의 '2024 하반기 FX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 KB증권 오재영 연구원은 "장기간 현 레벨에서 등락을 지속한 만큼 1200~1400원대가 새로운 균형이라고 판단한다"며 "향후 환율은 3분기까지는 달러화의 추가 강세로 1400원대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원·달러 환율은 통화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한은의 셈법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이달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금통위는 지난해 1월 0.25%포인트 인상을 마지막으로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회 연속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고 있다.

이번 금통위에서도 시장의 예상은 동결이 우세하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연일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점은 한은에게 부담이다. 만약 한은이 미국 연준보다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경우 한·미 금리 역전차 확대에 따라 1300원대 후반대인 환율이 외환위기 수준인 1400원대로 진입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한은 입장에서는 불안한 환율은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미 연준보다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인 셈이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도 지난 2일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높은 환율 수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기상 여건, 공공요금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물가가 목표에 수렴해 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저렴한 가격에 바다뷰까지… '부산항 퀸즈W' 임차인 모집

대성문, 18~21일 청약 접수
299세대 임대, 내년 4월 입주
청년·신혼부부 등 장기 거주 가능

부산 지역 중견 건설사인 대성문산업개발이 영도구 봉래동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부산항 퀸즈W 오션프런트'(조감도)의 임차인 모집에 나선다.

대성문산업개발은 오는 18~21일 나흘간 부산항 퀸즈W 오션프런트의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5일이며 입주 예정일은 2025년 4월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는 토지와 비용 등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어져 장기간 임대 목적으로 입주가 가능한 민간임대주택이다. 부산항 퀸즈W 오션프런트는 공사비 지원 대신 높이 제한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형태로 지어진다. 통상의 경우 시세 대비 80% 수준의 임대가로 공급되는데, 이 단지는 그보다 낮은 70%대의 임대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부산항 퀸즈W 오션프런트의 가장 큰 장점은 오션뷰 조망이다. 부산항을 바라보는 바닷가에 인접해 실내에서도 편안히 바다를 바라볼 수 있다.

대다수 오션뷰 아파트들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이 범접하기 어려운 가격대로 형성돼 있지만, 이 단지는 저렴한 임대가격으로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또 10년간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료 상승률도 5%로 제한돼 있어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돼 전세사고에 대한 우려 역시 줄일 수 있다.

만 19세 이상 부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세금으로부터 자유롭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4층 규모로 조성되며, 공동주택 299세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대상이다. 오피스텔 88호는 이미 분양 완판을 기록했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59㎡ 150세대 △49㎡ 90세대 △39㎡ 59세대이며, 보증금 비율에 따라 전세나 월세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단지 인근에 롯데백화점 광복점, 남포동 BIFF거리, 먹자골목, 흰여울 마을, 자갈치, 용두산공원, 태종대, 깡깡이 예술마을, 국립해양박물관 등이 위치해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손꼽힌다. 부산항대교와 남항대교, 부산대교 등을 이용해 부산 주요 거점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지리적 이점도 갖고 있다.

대성문 관계자는 "공공지원 임대 아파트는 주로 도심 외곽에 있어 실수요자인 청년 등으로부터 외면받기 쉬웠는데 부산항 퀸즈W 오션프런트는 입지 요건이 우수하다"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 늘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

서원유통·HJ중공업 등 부산상의 명예의원 10명 선정

3일 위촉식… 의원 준하는 예우
지역경제 공헌도 높은 기업 대상

부산상의는 지난 3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제25대 명예의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부산상의 제공

부산상공회의소는 제25대 의원부와 함께 활동하게 될 지역 대표기업인 10명을 명예의원으로 위촉했다.

4일 부산상의에 따르면, 명예의원은 부산상의 회원기업으로서 평소 부산상의 운영과 수행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도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임기는 일반의원 임기와 마찬가지로 2027년 3월까지며, 위원회 활동과 간담회 참석 등 의원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다만 신 의원총회 의결권은 없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명예의원은 △르노코리아자동차(주) 이해진 제조본부장 △(주)HJ중공업 유상철 대표 △(주)서원유통 김병찬 대표 △에어부산(주) 두성국 대표 △(주)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박정우 본부장 △(주)부산롯데호텔 홍성준 대표 △(주)풍산 부산사업장 김석기 전무 △조광요턴(주) 홍민규 대표 △(주)아이피케이 강종수 대표 △그로발스타로지스틱스(주) 진병수 대표 등 10명이다.

부산상의는 지난 3일 명예의원증과 의원 배지를 수여하는 '제25대 명예의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이들 기업인들을 축하했다.

부산상의는 지난 3월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취임 이후 의원부 산하 8개 위원회의 역할과 활동범위를 대폭 강화하고 나선 만큼 명예의원들의 지역 상공계 교류와 활동 폭이 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상의 의원부는 지역 산업과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8개 위원회별 특성에 맞춰 유관기관 관계자와 지역 오피니언 리더를 외부 자문위원으로 대거 합류시킨 바 있다.

분야별 전문가 초청 특강과 간담회, 선배 기업인과 스타트업 간 교류를 정례화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양 회장은 "명예의원들이 부산상의 의원들과 함께 지역 경제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적극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여진 기자 onlypen@